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이 18일 합평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단과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광주에 11월 중순까지 머물며 선수들을 파악한 후 미국으로 돌아간다.

“윌리엄스 원하는 팀 많았다”

조계현 KIA 단장이 밝힌 감독 영입 비화

“만난지 5분만에 공감대 형성...운 좋았다”

KIA 타이거즈 조계현 단장이 맷 윌리엄스 감독 영입 비화를 전했다. KIA는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을 2년(2014-15년)간 역임했던 윌리엄스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영입했다.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윌리엄스 감독은 오는 18일부터 합평 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중인 마무리캠프에 합류해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조계현 단장은 윌리엄스 감독의 입국 인터뷰에서 “사실 윌리엄스 감독을 원하는 팀이 많았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올 시즌 3루코치 계약이 끝나자마자 2년 계약을 제시했다고 한다. 감독이 공식인 몇몇 메이저리그 팀들은 윌리엄스 감독을 후보로 올려놨다. 샌프란시스코 지안츠 등 몇 팀은 인터뷰 일정까지 잡아뒀던 것으로 안다. 우리가 윌리엄스 감독을 만나고 영입까지 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코칭 스태프의 연봉과 KBO리그 코칭 스태프의 연봉은 어느정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계현 단장은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협상이 있었다. 우리도 메이저리그 기준을 100% 알고 협상에 임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깔끔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액수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지만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윌리엄스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금액보다는 계약기간이었다. 3년 계약을 강하게 원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 감독들이 대체로 3년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3년 계약이 추세라고 말했다”고 협상 과정을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한국야구 트레이 힐만 전 SK 와이번스 감독을 통해 많이 들었다. 조계현 단장과 과도 이야기를 하는데 5분 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울 것 같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현 단장 역시 “영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난지 5분 만에 하이퍼이브를 했다. 마음이 잘 맞았다. 메이저리그 감독 경험에 있어서 그런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1985년에 대표팀 경기에서 나와 대결한 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윌리엄스 감독 영입 비결을 전했다. KIA는 김기태 감독 사임 이후 장교 끝에 KBO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외국인 감독을 선택했다. 조계현 단장은 “우리가 2017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이후에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허위권으로 떨어졌다. 팀을 다시 재정비하고 최근 트렌드인 데이터 야구와 육성 방법을 팀에 이식하기 위해 외국인 감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계현 단장은 “이제 윌리엄스 감독과 한 배를 탔다. 좋은 야구관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다. 윌리엄스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야구가 선수들에게 잘 전달되고 경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퇴장’ 이강인, 라커룸서 눈물...팀 동료·감독 ‘위로’

백테클로 레드카드...21세기 출생 라리가 첫 퇴장

이강인(18·발렌시아)이 프로 데뷔 후 첫 퇴장을 당한 뒤 라커룸에서 눈물을 흘렸다. 알베르트 셀라레스 발렌시아 감독은 “아직 어린 선수”라며 이강인을 위로했다. 발렌시아는 19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원대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019-20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9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강인은 이날 후반 32분 데니스 체리셰프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종료 직전 산티아고 아리아스에게 강한 백테클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이강인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퇴장을 당했고, 2001년생인 이강인은 21세기에 태어난 선수 중 처음으로 라리가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됐다. 팀 동료 가브리엘 파울리스타는

스페인 ‘엘데스마르케’를 통해 “이강인이 라커룸에서 울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할 것”이라며 “아직 어리고 배울 것이 많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이강인을 도와야 할 때”라고 전했다. 셀라레스 감독 역시 “이강인은 아직 매우 어리다. 계속배워야 한다”며 “이런 경험이 이강인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발렌시아는 오는 24일 프랑스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H조 3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K리그2 조기 우승 확정 · 1부리그 직행

승점 70점 선착, 2위 부산 패하며 시즌 경쟁 종료
팀 창단 최다승 · K리그2 최다무패 신기록 등 역대급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2 2019 조기 우승을 달성했다. 광주주는 창단 첫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1부 리그 직행 열차에 오르게 됐다. 광주는 지난 19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33라운드에서 안양에게 4-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승점 70점(20승 10무 3패)에 선착한 광주는 자력 우승까지 1경기만 남겨둔 상황. 하지만 추격자 2위 부산아이파크(승점 60)가 20일 열린 33라운드에서 안산 그리너스에 0:2로 패하며 잔여경기 상관없이 우승이 확정됐다. 팀 창단 최초 우승과 함께 2년 만에 1부리그 승격에 성공한 박진섭 감독의 광주는 올 시즌 역대급 경기력으로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 3월 3일 개막전부터 7월 14일 19라운드까지 연속 무패행진(13승 6무)을 달리며 K리그2 최다 무패 신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팀 최초 6연승(14R~19R), 팀 통산 100승(16R, 수원FC전), 팀 통산 400호골(29R, 윌리엄), 단일시즌 최다승(20승) 등을 달성했다. 광주의 우승에는 박진섭 감독의 세심한 전술 설계가 밑거름이

됐다. 지난 시즌을 5위로 마친 박진섭 감독은 동계훈련 내내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체크하고 면담, 개인 훈련 지도 등으로 전술을 맞춰나갔다. 또 박정수, 박선주, 이진형, 윌리엄, 아솔마투프 등을 영입하며 더블스쿼드로 선수층을 두텁게 구성했다. 특히 2018시즌 42실점했던 수비력을 올 시즌 26실점(클린시트 17경기)으로 더욱 강하게 개선한 점이 주목됐다. 이는 올 시즌 K리그1, 2부 통틀어 최소실점이다. 박진섭 감독은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뤄 너무 기쁘고, 모두가 고생했는데 우승으로 보답을 받게 돼 보람차다”며 “이제 또 1부 리그에서의 새로운 고민과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은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경기는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팀에 힘이 돼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며 “조기 우승 확정으로 2-3주 가량 늘어난 시간은 1부 리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짜는 데 사용할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우승을 향한 동기부여도 확실했다. 광주는 내년 시즌 창단 10주년을 맞는다. 선수단 뿐 아니라 구상원 모두가 승격을 간절히



박진섭 광주FC 감독

원했다. 이용섭 구단주는 역대 구단주 최초로 풀타임 관전 후 선수단 격려에 나서는 등 관심을 보였다. 또 7000석 규모의 축구전용 경기장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클럽하우스 없이 버텼던 5년간의 목표 더부살이도 끝났다. 시 관계자는 “K리그2 역시 만만치 않은 무대로 단기간에 승격하지 못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었지만 승부를 빨리 봐야 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시즌을 준비했다”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든 구상원들이 힘을 모아 승격을 이뤄내 내년 시즌은 새로운 집, 더 높은 무대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니 끝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명품하는 행복의조반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화순군
HWASUN-GUN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미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